

대학생이 인식하는 상담 받는 사람들에 대한 원형 연구*

왕 윤 정

서 영 석†

연세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상담이 필요하지만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의 상담 이용을 촉진시키고자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상담 받는 사람들에 대한 원형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원형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특성 도출 단계 63명, 특성평정 및 선발단계 113명, 특성 분류 단계 101명 등 상담 경험이 없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인식하고 있는 상담 받는 사람들에 대한 특성을 도출하고, 유사한 의미를 가진 특성들을 수평적으로 범주화한 후, 위계적 군집분석을 사용하여 특성들을 위계적으로 조직화하였다. 연구 결과, 대학생들은 상담 받는 사람들에 대해 ‘상담 받는 사람의 성격’과 ‘상담 받는 사람의 어려움’과 관련된 특성들을 떠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생들은 ‘상담 받는 사람의 어려움’ 중에서도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과 ‘주변에 의지할 사람 없는’과 관련된 특성을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갖고 있는 상담 받는 사람에 대한 인식의 내적구조를 제시함으로써 대학생들의 상담 도움추구 의향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 활용 가능한 지식을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한편, 본 연구는 특성평정 및 선발단계에 참여한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제약이 따르는 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주요어 : 상담 도움추구, 원형, 원형 연구 방법, 대학생

* 본 연구는 왕윤정(2014)의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을 요약한 것임.

† 교신저자 : 서영석,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Tel : 02-2123-6171, E-mail : seox0004@yonsei.ac.kr

심리정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상담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많은 연구들을 통해 입증되어 왔다(Greenberg, Warwar, & Malcolm, 2008; Wampold, 2000). 그러나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상담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한 설문조사에서도 심리적인 장애를 경험한 성인 중 약 41%만이 상담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Eisenberg, Golberstein, & Gollust, 2007). 이처럼 심리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면서도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를 찾지 않는 현상을 서비스 이용 격차(service gap)라 한다(Cramer, 1999; Stefl & Prospero, 1985).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10만 명 당 약 28명이 자살하고, 지난 20년간 25세 이하 자살률이 감소하지 않은 등 국민들의 정신건강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11). 특히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자살자 수는 2001년 195명이었다가 점차 증가하여 2009년도에는 249명으로 매년 평균 230명에 달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9년 기준으로 정신과적 문제로 인한 자살 사유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2011, 4, 11). 하지만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심리정서적인 문제를 비롯한 학업·진로, 적응, 대인관계 문제를 겪더라도 전문상담기관이 아닌 친구, 선배, 가족 등에 우선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혼자 해결하는 것으로 알려져(김명언, 이훈진, 이병주, 이지영, 박진석, 2006; 오윤자, 김현주, 2015; 이기학, 이경아, 이정화, 2008) 상담 서비스에 대한 이용격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적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구하지 않는 대학생들의 상담서비스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면, 심리정서적인 문제가 개인 및 사회에 미치게 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

시킬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주로 합리적 행동 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을 토대로 도움 추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탐색하였다. 합리적 행동 이론에서는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자신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행동한다고 가정한다(Ajzen & Fishbein, 1980). 이때 행동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은 '의도(intention)'로서, 행동을 수행하기 위한 의식적인 계획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한편, 의도는 특정 행동에 대한 자신의 평가(태도)와 주요 타인들이 그 행동을 승인하는지(사회적 규범)에 따라 결정된다. 이런 가정을 토대로 연구자들은 상담 의도 및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차 변인들을 확인하려고 노력하였다. 예를 들어, 심리적 불편감(유영란, 이지연, 2006; Rickwood & Braithwaite, 1994; Robbins & Greenley, 1983; Vogel & Wei, 2005), 이전 상담 경험(박준호, 서영석, 2009; Vogel, Wade, & Haake, 2006; Vogel & Wester, 2003; Vogel, Wester, Wei, & Boysen, 2005), 사회적 지지망에 대한 조망(김주미, 유성경, 2002; 유영란, 이지연, 2006; 장미경, 2012), 내담자의 성별(남숙경, 이상민, 2012; 신연희, 안현의, 2005; 유성경, 2005; 유성경, 이동혁, 2000; Komiya, Good, & Sherrod, 2000)이 상담 의도 및 태도를 촉진하는 접근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자기 낙인/사회적 낙인(박준호, 서영석, 2009; 이민지, 손은정, 2007; 정진철, 양난미, 2010; Zartaloudi & Madianos, 2010), 자기은폐(유영란, 이지연, 2006; 신연희, 안현의, 2005), 자기개방에 대한 불편감(Hinson & Swanson, 1993; Komiya, Good, & Sherrod, 2000; Vogel & Wester, 2003) 등은 상담 의도 및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회피요인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행동을 가정한 합리적 행동 이론의 한계를 지적하는 연구결과 및 이론들이 제시되었다. 우선, 합리적 행동 모델이 건강 관련 행동 변량을 31% 설명하는 반면(Armitage & Connor, 2001), 합리적 과정과 반응적(reactionary) 과정을 동시에 고려한 모델은 건강 관련 행동 변량을 79%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errard et al., 2002). 이러한 연구결과는 건강 관련 행동이 체계적인 추론 등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즉흥적이고 직관적인 과정을 통해서도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Gerrard, Gibbons, Houlihan, Stock, & Pomery, 2008).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역시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서만 상담서비스를 찾는다고 가정할 수는 없다. 실제로, 상담 등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담에 대한 ‘괜한’ 거부감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경우가 많다(최성인, 김창대, 2010). 더욱이, 행동을 가장 직접적으로 예측할 것으로 가정했던 ‘의도’가 예상만큼 행동을 많이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3주 혹은 5-10주 간격을 두고 도움추구 의도와 실제 도움추구 행동을 측정하여 둘의 상관을 밝힌 연구(Wilson, Deane, Ciarrochi, & Rickwood, 2005; Wilson, Deane, Marshall, & Dalley, 2008)에서 도움추구 의도는 실제 행동의 변량을 3-5% 정도밖에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사람들의 의사결정을 합리적 과정으로 간주한 합리적 행동 이론의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서, 상담 등 도움추구 행동을 예측함에 있어서 계획된 의도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심리적 특성의 존재를 파악할 필요성을 제기한

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도움추구 행동을 예측함에 있어서 의도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밝혀진 의향(Willingness)과 의향에 독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원형(prototype)을 살펴보고,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상담 받는 사람들에 대한 원형을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의향(willingness)은 특정 행동을 촉진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성을 의미하는데(Gibbons, Houlihan, & Gerrard, 2009), 의도와는 달리 어떤 행동에 대해 사전에 계획하거나 심사숙고하는 과정을 포함하지 않는다(Gibbons, Gerrard, Blanton, & Russell, 1998). 의향은 합리적 행동이론의 대안으로 제시된 원형/의향 모델(Prototype/Willingness Model: 이하 PWM)(Gerrard et al., 2008)에 기반을 두고 있다. PWM은 기존의 합리적 행동 이론을 확장한 것으로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의도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을 따르기도 하지만, 이미지 기반의 사회적 반응 경로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사회적 반응 경로는 즉각적이고 직관적이며 반응적인 의사결정과정을 의미하는데, 이때 의향이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즉, 의도가 행동을 유일하게 결정한다고 가정한 합리적 행동 이론과는 달리, 원형/의향 모델에서는 의도 뿐 아니라 의향 역시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예를 들어, 학사경고를 받은 대학생이 지도교수와 면담을 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지도교수는 학생의 낮은 성적이 우울함에 기인한다고 판단하고 학생에게 상담을 받아볼 것을 제안한다. 이 학생은 상담센터에 대해 거의 아는 정보가 없고 상담을 받아봐야겠다는 계획을 세워본 적도 없지만, 교수의 제안을 계기로 상담센터에 방문하기로 결정한다. 이때 학생의 상담 도움

추구 행동은 사전에 정보를 수집하고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행동이 아니라,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직관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경험적인 연구들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행동을 해야 할 때(Gibbons, Gerrard, Reimer, & Pomery, 2006),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식되는 행동을 해야 할 때(Gibbons, Gerrard, & Lane, 2003) 의도보다 의향이 행동을 더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서비스를 구하는 것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새롭고 낙인을 수반하는 행동이기 때문에(박준호, 서영석, 2009; Vogel et al., 2006), 상담을 받으려고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데 있어서 의향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최근 들어, Hammer와 Vogel(2013)은 원형/의향 모델을 기반으로 의도와 의향을 모두 변인으로 설정하여 도움추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였는데, 의도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의향은 도움 추구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도움추구 결정에 있어 의향이 중요한 변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Hammer와 Vogel(2013)의 연구에서 태도나 사회적 규범은 의도와 의향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원형(prototype)은 의향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미국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상담 받는 사람들에 대한 원형은 총 50개의 특성으로 도출되었는데, 50개의 특성 중에는 부정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특성들 또한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형은 특정 행동에 관여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이미지 또는 정신적 표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Gibbons & Gerrard, 1995) 인지심리

학 분야에서 어떤 대상이나 개념을 가장 명료하게 드러낼 수 있는 대표적인 특징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원형의 개념과 유사하다(Horowitz & Turan, 2008). 전통적으로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에서 집단무의식에 포함된 인류보편적인 경험의 원시적 이미지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원형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Hall & Nordby, 1973).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이미지 또는 원형을 갖고 있는데, 자신이 그런 행동을 수행할 경우 행동과 관련된 이미지를 갖게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원형에 대한 지각된 선호도(favorability)에 따라 자기 자신을 원형과 거리를 두거나 일치시키고자 한다(Dunning, Perie, & Story, 1991; Niedenthal, Cantor, & Kihlstrom, 1985). 결국, 원형에 대한 선호도가 특정 행동을 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실제로 특정 원형에 호의적이지 않을 경우 해당 행동에 관여하려는 의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Gerrard et al., 2002; Gibbons & Gerrard, 1995). 따라서 사람들이 평소 상담 받는 사람들에 대해 어떤 이미지 또는 원형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상담을 받아야 할 상황에서 또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상담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원형은 사회구성원들의 암묵적인 합의물로서(Snortum, Kremer, & Berger, 1987), 특정 개념과 행동에 대한 원형은 지역, 인종,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를 수 있다. Hammer와 Vogel(2013)의 연구에서 미국 대학생들은 상담 받는 사람들을 “스트레스를 받는”, “우울한”, “불행한”, “걱정하는”, “괴로워하는” “불안해하는” 사람으로 묘사하면서도, 스스로를 인식하고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으로 묘사하였다(예,

“정직한”, “개방적인”, “동기 부여된”, “스스로를 인식하는”, “똑똑한”, “우호적인”, “행복한”). 이는 개인의 독특함과 개별성을 중시하는 개인주의 문화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미국대학생들의 경우 상담 받는 것을 심리정서적으로 힘들어 하는 개인이 자신의 심리적 건강을 위해 독립적으로 결정할 의미 있는 행위로 인식함을 의미한다. 원형이 사회문화적 경험을 공유하는 구성원들의 정신적 표상임을 가정할 때, 문화마다 원형의 내용이나 구성 요소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전통적으로, 동양문화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상담 받는 것을 나약함의 신호로 여기거나 가족에 수치를 가져다주는 행위로 인식하는데 (Root, 1985), 내집단의 결속과 구성원 간 관계 및 체면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상담 받는 사람들에 대한 특성은 미국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특성과는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상담 등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한 연구는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이 상담 받는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원형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한편, 사전 행동이 그 행동과 관련된 원형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Gerrard et al., 2002), 본 연구에서는 상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참여자로 선정하여 상담 받는 사람들에 대한 원형을 탐색하였다. Hammer와 Vogel (2013)의 연구에서는 이전 상담 경험 여부와 상관없이 참여자들을 선정하였는데, 이럴 경우 연구결과가 참여자들의 실제 상담 경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원래 상담 받는 사람들에 대한 대학생들의 이미지가 그런 것인지를 구별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전 상담경험을 통제하고, 상담 경험이 없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상담 받는 사람들에 대한 원형을 확인하였다.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는 이전 상담 경험이 없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상담 받는 사람들에 대해 지니고 있는 정신적 표상(원형)을 밝히고자 하였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지만 이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의 상담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이 상담 받는 사람들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밝히고, 그것을 토대로 상담서비스 홍보 전략 및 내용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이 과정에 일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담 도움 추구하고 관련된 후속 연구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원형 관련 변인들을 추출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상담 받는 사람들에 대해 어떤 원형을 지니고 있는가?”

방 법

원형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상담 받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성을 도출하기 위해 원형 연구 방법(Li, 2001; Shaver, Schwartz, Kirson, & O'Connor, 1987; Zhou, Leung, & Li, 2012)을 사용하였다. 원형 연구 방법은 질적 연구 방법과 양적 연구 방법이 결합된 혼합 연구 방법으로서, 특정 개념이나 대상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의 내적 구조를 탐색하는데 유용하다(Horowitz & Turan, 2008). 예를 들어, Zhou 등(2012)의 연구에서는 원형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중국 대학생들이 일에 대해 갖는 의미를 조사하였는데, 서양과는 달리 중국 문화권에서만 독특하게 드러나는 일과 관련된 개념(부모의 기대와 걱정, 부모에게 되갚기 위해, 부모 돈을 더 이상 쓰지 않기 위해 등)을 도출하였다.

원형 연구 방법을 사용할 경우 일반적으로 두 단계의 절차를 거친다. 첫째는 특성 도출 단계로서 특정 개념에 친숙한 집단을 대상으로 그 개념과 관련된 특성들을 도출하는 단계이다(Fehr, 1988, 2004). 둘째는 특성 평정 및 선발 단계로서 첫 번째 단계에 참여하지 않은 새로운 참여자들이 이전 단계에서 도출된 여러 개의 특성들이 그 개념과 얼마나 관련성이 있는지를 평정한다. 그 후, 연구자는 분할점(cutoff point)을 정해 그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특성들을 선별하여, 제시된 특성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특성의 목록만을 추려낸다(Fehr, 1988, 2004). 그러나 이 두 가지 단계는 특성들의 수평적 차원만을 확인할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Fehr, 1988; Zhou et al., 2012). Rosch(1975)는 특성들이 수평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수직적 차원으로도 조직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특정 수준에서 다양한 특성들이 존재할 수도 있지만, 특성들이 추상적인 수준에서 보다 구체적 수준까지 위계적으로 조직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사자나 토끼, 호랑이, 표범 등은 같은 수준에서 수평적으로 조직화되고, 이들은 ‘동물’이라는 보다 추상적인 위계적 구조로 조직될 수 있다. 이처럼 특정 개념과 관련 있는 여러 특성들을 수평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수직적 차원으로도 구조화 할 수 있다면, 특정 개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의 내적구조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Zhou et al., 2012).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상담 받는 사람들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존의 원형/의향 모델 연구에서 주로 사용했던 원형 연구 방법보다 한 단계 진보된 방법(Li, 2001, 2003; Shaver et al., 1987; Zhou et al., 2012)을 사용하였다. 즉, 특성 도출과 특성 평정 및 선발 단계 뿐 아니라 특성 분류 단계를 추가로 거쳐서 원형을 도출하였다. 특성 분류 단계에서는 이전 단계에서 선발된 특성들의 의미가 유사한 것들끼리 범주화시킨 후 이를 유사성 행렬로 변환하고, 위계적 군집분석을 사용하여 원형의 수평적 차원 뿐 아니라 수직적 차원을 밝힌다.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앞서 기술한 것처럼, 본 연구는 특성 도출, 특성 평정 및 선발, 특성 분류 등 총 3단계로 진행되었다. 아래에서는 각 단계에 참여한 연구대상자와 자료 수집 및 분석 과정을 기술하였다.

특성 도출 단계

연구 대상자 및 자료수집. 이 단계에서는 상담 경험이 없는 대학생 63명(여 36, 남 27)이 참여하였다. 우선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연구자의 지인 중에서 상담경험이 없는 대학생 2명(남 1, 여 1)을 연구자가 만나서 상담 받는 사람을 상상했을 때 떠오르는 전형적인 특성을 자유롭게 브레인 스토밍하도록 하였다. 또한 어떤 방식과 내용으로 질문하는 것이 상담 받는 사람들에 대한 특성을 잘 떠

오르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피드백을 요청하였다. 그 결과 형용사나 짧은 문장 형식으로 총 16개의 특성이 도출되었다. 사전조사에 참여한 대학생 두 명의 피드백과 Hammer와 Vogel (2013)의 연구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지시문을 작성하였다. “누군가를 묘사할 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 사람의 특성을 묘사합니다. 예를 들어, 항상 좋은 성적을 받는 사람에 대해 묘사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이 스마트하고, 진지하며, 학구적이라고 말할 겁니다. 자, 이제 상담 받는 사람들을 떠올려보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상담을 받는 사람을 묘사한다면, 어떤 특성을 가졌다고 묘사할 것 같나요? 상담을 받는 사람들의 특성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사전조사 이후, 수도권과 지방에 소재한 4년제 대학교의 온라인 게시판에 광고 글을 게시하여 상담 경험이 없는 대학생 61명(여 35, 남 16)을 모집하였다. 참여자들에게 온라인으로 위의 지시문을 제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하였다. 대학생 참여자 63명의 평균 연령은 23.7세($SD = 2.5$)였으며, 재학 중인 대학교는 서울 6개(43명)를 비롯하여 경상도 2개(12명), 대전광역시 2개(6명), 경기도 1개(1명), 강원도 1개(1명)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의 학년은 1학년이 10명, 2학년 14명, 3학년 22명, 4학년 12명, 초과학기 5명이었으며, 참여자들의 전공은 공대(16명), 사회과학대(14명), 인문대(11명), 상경대(11명), 자연대(4명), 예술대(2명), 사범대(1명), 기타(4명)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자료 분석.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215개의 특성들이 도출되었고, 사전조사에서 도출된 16개와 함께 총 231개의 특성이 도출되었다(범위 = 1-11개, 평균 3.67개). 연구자는 의

미상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특성들이나 같은 특성이지만 다른 문법적 형태로 제시된 것들을 통합하였고, 통합된 특성들이 원자료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상담 전공 교수 1인에게 자문을 받았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총 80개의 특성들이 도출되었다.

특성 평정 및 선발 단계

연구 대상자 및 자료 수집. 이 단계에서는 수도권과 지방에 소재한 4년제 대학교 온라인 게시판에 연구 관련 광고글을 게시하고, 상담 경험이 없으며 이전 단계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생 113명(여 61, 남 52)을 모집하였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21.05세($SD = 1.73$)였으며, 재학 중인 대학교는 서울시 11개(66명)를 비롯하여 경상도 4개(24명), 충청도 및 대전광역시 7개(19명),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2개(2명), 강원도 2개(2명)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의 학년은 1학년 28명, 2학년 19명, 3학년 27명, 4학년 25명, 초과학기 14명으로 나타났고, 전공은 공대(37명), 상경대(19명), 사회과학대(12명), 인문대(11명), 자연대(9명), 의과대(8명), 사범대(6명), 법대(4명), 생활과학대(4명), 예술대(1명), 기타(2명)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대학생 참여자 113명에게 이전 단계에서 도출된 80개의 특성들이 상담 받는 사람의 특성을 얼마나 잘 나타내는지 4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평정하게 하였다(1점 = 해당 특성이 상담 받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성을 전혀 나타내지 않음, 4점 = 해당 특성이 상담 받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성을 매우 잘 나타냄). 각 특성에 대한 원형성 평정과 함께, 제시된 특성 중에서 의미가 동일하다고 생각되거나 뜻

을 이해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는지에 대해 피드백을 요청하였다. 피드백을 토대로, 80개의 특성 중 11명(9.73%)의 참여자들이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고한 1문항(일반적이지 않은)을 제외하였고, 10% 이상의 참여자들이 같은 의미라고 인식하는 4쌍의 문항 중 평정점 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4개 문항(문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힘든 것을 남들에게 표현하지 못하는, 트라우마가 있는, 어려움이 있는)을 제외하였다.

자료 분석.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상담 받는 사람들의 특성 중 원형성이 높은 특성을 찾아내고, 이후 단계에서 참여자들이 많은 특성들을 분류해야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형 연구 방법을 사용한 선행연구에서처럼 분할점을 사용하여 특성을 선별하였다. 예를 들어, Shaver 등(1987)은 4점이 최고 점수인 척도에서 2.75점을 분할점으로 설정하여 도출된 전체 특성 중 60%에 해당하는 특성들을 선별하였고, Li(2001)는 2.85점을 적용하여 47%의 특성들을 채택하였으며, Zhou 등(2012)은 2.95점을 사용하여 43%의 특성들을 선별하였다. 연구자들이 기존 연구자들과 교신을 한 결과, Shaver 등(1987)이 제시한 2.75점은 하나의 지침일 뿐 연구 참여자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의 특성들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행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이후 단계에서 참여자들이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으로도 특성 분류를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이들의 부담감과 피로도를 낮추고 답변의 성실성을 높일 수 있는 특성의 수를 고려하였다. 또한 최근의 선행연구(Li, 2001, 2003; Zhou et al., 2012)에서 분할점 대비 도출되는 특성의 수를 고려하여

43-47%의 중간에 해당하는 45%의 특성을 선별하기 위해 중앙값 2.44점을 분할점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36개의 특성을 선별하였다.

한편, 평정자간 상관을 도출하기 위해 참여자 113명을 대상으로 모든 가능한 쌍의 상관을 구한 후 전체 평균을 산출한 결과, 평균 평정자간 상관은 .24로 나타났다(범위 = -.53-.82). 이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상담 받는 사람들의 특성을 다양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원형을 탐색한 선행연구들에서 평정자간 상관이 .10에서 .30사이인 점을 고려하면(Horowitz & Turan, 2008), 본 연구에서 도출된 .24는 일반적인 원형 연구에서의 평정자간 상관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특성 분류 단계

연구 대상자 및 자료수집. 이 단계에서는 오프라인 및 온라인 광고를 통해 상담 경험이 없는 대학생 101명(여 57, 남 44)을 모집하였다. 우선, 서울소재 4년제 대학교에서 상담 관련 수업을 수강 중인 대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참여 절차를 설명하였고, 교내 게시판에 연구 관련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또한 수도권과 지방에 소재한 4년제 대학교 온라인 게시판에 연구 관련 홍보 글을 게재하여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신청자 중에서 상담 경험이 없다고 보고하고 이전 단계에 참여하지 않았던 대학생들을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 오프라인으로는 55명, 온라인으로는 46명, 총 101명의 대학생들이 특성 분류 작업에 참여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22.4세($SD = 2.3$)였으며, 학년 분포는 1학년 18명, 2학년 22명, 3학년 30명, 4학년 28명, 초과학기 3명으로 나타났다. 재학 중인 대학교는 서울시 소

재 5개(72명), 경상도 3개(20명), 충청도 4개(8명), 경기도 1개(1명)로 나타났고, 전공은 사범대 33명, 공대 18명, 인문대 13명, 상경대 7명, 예술대 6명, 자연과학대 6명, 사회과학대 6명, 간호대 3명, 법대 2명, 농대 2명, 기타 5명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특성 분류 작업을 위해, 연구자는 이전 단계에서 최종 선발된 36개 특성을 흰색 바탕의 인덱스카드에 인쇄하여 36장의 카드를 제작하였다. 오프라인으로 분류 작업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의 세미나실에 5-10명씩 모여 각자 특성들을 분류하였다. 이때 각각의 참여자에게는 36장의 카드와 함께 지면과 구두 상으로 다음과 같은 지시문이 전달되었다. “카드에 적힌 단어들은 상담을 받는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전형적인 특성을 나타냅니다. 의미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카드들끼리 범주화 시켜주십시오. 범주의 개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한 단어가 여러 범주에 중복해서 들어갈 수 없고, 한 범주에만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생성한 범주마다 포스트잇을 사용해서 범주의 명칭, 범주에 대한 간단한 설명, 카드번호를 적어주십시오.” 온라인 조사에서는 위의 지시문을 동일하게 제시하고, 엑셀을 사용해서 36개 특성을 의미가 유사한 것끼리 분류하도록 요청하였다. 참여자들은 최소 3개부터 최대 16개의 범주로 분류하였는데, 그 중 한 참여자는 36개의 특성을 5개의 범주로 분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36개의 특성은 ‘쉽게 치유되지 않는 아픔을 가진 사람’(혼자서 해결하기 힘들어하는, 누군가의 관심이 필요한 등), ‘쉽게 치료될 아픔(갑자기 닳친 스트레스)를 가진 사람’(힘든 문제가 있는, 스트레스가 심한 등), ‘타고난 유리멘탈’(쉽게 상처받는, 감수성이 예민한 등), ‘진짜로 발전할 수

있는, 본인도 모르는 숨은 원석’(문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 등), ‘열심히는 하나 실속 없는 유형’(답답함을 느끼는, 불안한 등)과 같이 범주화되었다.

자료 분석. 참여자들이 수행한 특성 분류 작업을 토대로 연구자는 참여자 101명 각각에 대한 유사성 행렬(36*36)을 제작하였고, 참여자 101명의 유사성 행렬을 합산한 집단 유사성 행렬표(group similarity matrix: GSM)를 제작하였다. SPSS 18.0을 사용해서 집단 유사성 행렬에 대해 다차원척도 분석을 실시한 후, 각 문항에 대한 2차원 좌표 값을 산출하였다. 2차원 좌표 값을 사용하여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하고 덴드로그램을 도출하였다.

결 과

위계적 군집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김선경과 전재영(2012)이 제시한 기준을 참고로 군집의 수를 결정하였다. 즉, 특성 분류 단계에 참여한 사람들이 분류한 군집의 수보다 많지 않고, 군집 내 특성과 군집 간 특성이 분명하게 차이가 나며, 덴드로그램에서 2개에서 9개 군집을 서로 비교하여 논리적 유사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총 9개의 군집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연구 참여자들이 특성 분류 시 사용한 명칭을 참고하여 각 군집에 대한 명칭을 결정하였다. 위계적 군집분석을 통해 드러난 범주의 위계적 구조를 그림 1에 제시하였고, 위계상 가장 기초 수준(기초수준 4)이면서 36개 특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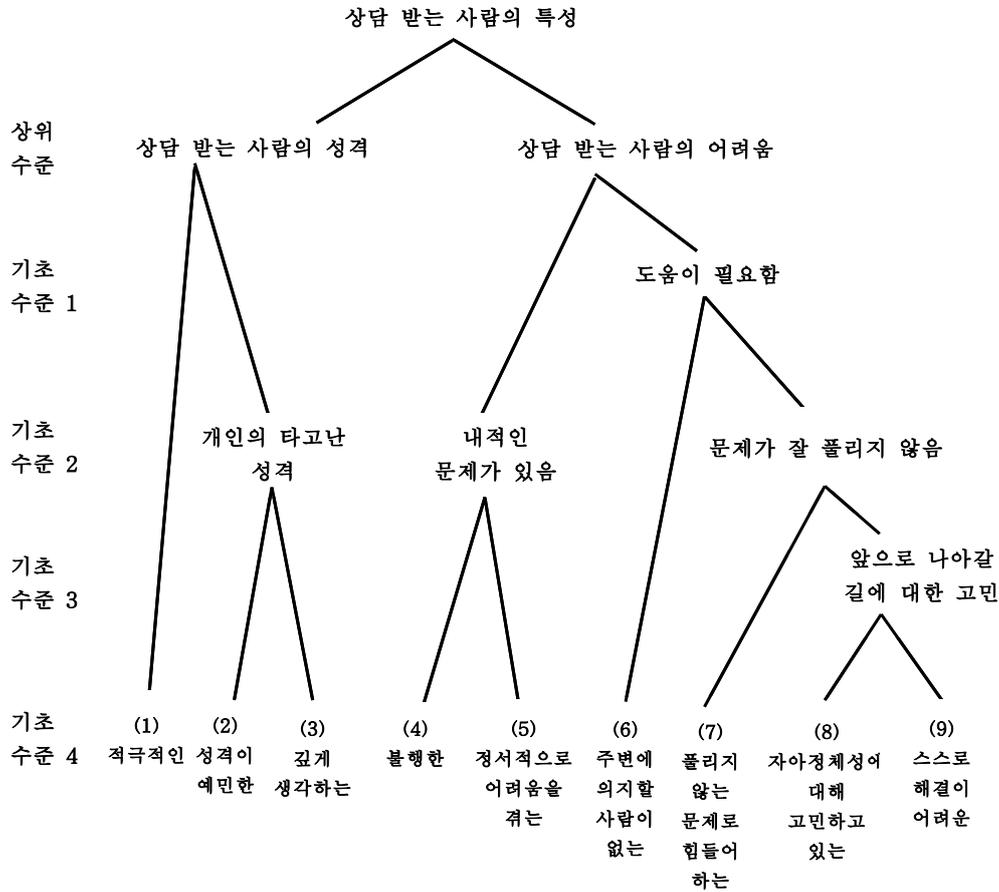


그림 1. 상담 받는 사람의 특성에 대한 위계적 범주

개 범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도출된 36개 특성은 우선 9개의 범주로 분류되었다. 예를 들어,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범주는 9개 범주 중 가장 많은 특성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내적 갈등이나 고민 때문에 우울하거나 불안해서 정서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불안한’, ‘초조한’, ‘내적 갈등이 많은’, ‘마음이 힘든’,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우울한’, ‘스트레스가 심한’). ‘주변에 의지할 사람이 없는’ 범주 또한 가장 많은 특

성을 포함하고 있는데, 상처로 인해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외로움을 많이 느끼며 힘든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털어놓지 못하는 사람을 묘사하고 있다(‘자신감이 없는’, ‘위축되어 있는’, ‘마음에 상처가 있는’, ‘주변에 말할 사람이 없는’, ‘기댈 곳 없는’, ‘주위 사람들에게 털어놓기 꺼려하는’, ‘외로운’). 또한 ‘적극적인’ 범주는 긍정적인 특성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담 받는 사람들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만큼 용기와 의지를 지니고 있고 스스로에게 관심을 보

표 1. 군집분석 결과 최저 수준(기초수준 4)에 해당되는 범주 명칭 및 해당 특성

범주(기초수준 4)	특성	원형평정 평균점수	순위
(1) 적극적인	용기가 있는	2.59	27
	적극적인	2.44	36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	3.16	7
	발전가능성이 있는	2.80	20
	자신에 대해 관심 많은	2.84	18
	어느 정도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는	2.94	13
(2) 성격이 예민한	쉽게 상처받는	2.67	22
	감수성이 예민한	2.61	25
	자아비관적인	2.48	33
(3) 깊게 생각하는	생각이 많은	3.19	3
	진지한	2.45	35
(4) 불행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2.60	26
	행복하지 않은	2.59	27
	불만족스러운	2.51	32
(5)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불안한	2.86	17
	초조한	2.84	18
	내적 갈등이 많은	3.46	1
	마음이 힘든	3.30	2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3.01	11
	우울한	2.80	20
	스트레스가 심한	3.19	3
(6) 주변에 의지할 사람이 없는	자신감이 없는	2.65	23
	위축되어 있는	2.53	31
	마음에 상처가 있는	2.96	12
	주변에 말할 사람이 없는	2.64	24
	기댈 곳 없는	2.56	30
	주위 사람들에게 털어놓기 꺼려하는	2.92	14
	외로운	2.58	29
(7) 풀리지 않는 문제로 힘들어하는	답답함을 느끼는	2.92	14
	뭔가 뜻대로 되지 않는	2.87	16
	힘든 문제가 있는	3.19	3
(8) 자아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는	3.05	9
	자신에 대해 잘 모르는	2.47	34
(9) 스스로 해결이 어려운	전문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3.18	6
	혼자서 해결하기 힘들어하는	3.08	8
	누군가의 관심이 필요한	3.05	9

표 2. 본 연구 결과와 Hammer와 Vogel(2013)의 연구 결과 비교

범주(기초수준 4)	본 연구에서 도출된 특성	Hammer와 Vogel(2013) 연구에서 도출된 특성
(1) 적극적인	용기가 있는	-
	적극적인	willing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	motivated
	발전가능성이 있는	-
	자신에 대해 관심 많은	-
(2) 성격이 예민한	어느 정도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는	-
	쉽게 상처받는	-
	감수성이 예민한	-
(3) 깊게 생각하는	자아비관적인	-
	생각이 많은	-
(4) 불행한	진지한	serious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
	행복하지 않은	unhappy
(5)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불만족스러운	-
	불안한	anxious
	초조한	nervous
	내적 갈등이 많은	troubled
	마음이 힘든	distressed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emotionally unstable
	우울한	depressed
(6) 주변에 의지할 사람이 없는	스트레스가 심한	stressed
	자신감이 없는	-
	위축되어 있는	-
	마음에 상처가 있는	hurt
	주변에 말할 사람이 없는	-
	기댈 곳 없는	-
(7) 풀리지 않는 문제로 힘들어하는	주위 사람들에게 털어놓기 꺼려하는	-
	외로운	lonely, alone
	답답함을 느끼는	-
(8) 자아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뭔가 뜻대로 되지 않는	-
	힘든 문제가 있는	problematic
	자신의 인생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는	-
(9) 스스로 해결이 어려운	자신에 대해 잘 모르는	-
	전문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in need of help
	혼자서 해결하기 힘들어하는	-
	누군가의 관심이 필요한	-

이는 긍정적인 사람들로 인식되고 있었다(‘용기가 있는’, ‘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 ‘발전가능성이 있는’, ‘자신에 대해 관심이 많은’, ‘어느 정도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는’). 이와는 반대로, 대학생들은 상담 받는 사람을 ‘불행한’ 사람으로 묘사하기도 했는데,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매사에 비관적이고 부정적이라고 인식하였다(‘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행복하지 않은’, ‘불만족스러운’). 이 밖에도 ‘성격이 예민한’, ‘깊게 생각하는’, ‘풀리지 않는 문제로 힘들어 하는’, ‘자아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스스로 해결이 어려운’ 등의 범주가 가장 기초적인 수준에서 도출되었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가장 기초적인 수준의 9개 범주들은 4단계를 거치면서 위계적으로 재차 분류되었고, 2개의 추상적인 범주로 구성된 상위수준으로 분류, 통합되었다. 상위수준의 추상적 범주들은 ‘상담 받는 사람의 성격’과 ‘상담 받는 사람의 어려움’으로 명명되었는데, ‘상담 받는 사람의 성격’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특성 중 상황에 상관없이 대체로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성격적인 측면을 의미하고, ‘상담 받는 사람의 어려움’은 개인이 경험하는 심리적인 어려움을 지칭한다. 예를 들어, ‘상담 받는 사람의 성격’에는 ‘적극적인’, ‘성격이 예민한’, ‘깊게 생각하는’ 범주들이 포함되어 있다. ‘상담 받는 사람의 성격’ 범주에는 36개 특성 중 11개 특성들(30.6%)이 포함되었고, ‘상담 받는 사람의 어려움’ 범주에는 25개 특성(69.4%)이 포함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상담 받는 사람의 특성을 떠올릴 때, 상담을 받는 사람의 성격적인 측면보다는 그 사람이 상담을 받게 되는 어려움을 더 많이 떠올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종적으로 ‘상담 받는 사람의 성격’과 ‘상담 받는 사람의 어려움’은 ‘상담 받는 사람의 특성’으로 최종 통합되었으며, ‘상담 받는 사람의 특성’은 개인의 심리적인 특성을 의미한다.

참고로, 본 연구 결과를 Hammer와 Vogel(2013)의 연구 결과와 비교하면 표 2와 같다. 우선,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범주에 속한 특성들은 두 연구 모두에서 도출된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주변에 의지할 사람 없는’ 범주 중 ‘마음에 상처가 있는’, ‘외로운’은 미국 연구에서도 나타났으나, ‘주변에 말할 사람이 없는’과 ‘기댈 곳 없는’, ‘주위 사람들에게 털어놓기 꺼려하는’은 본 연구에서만 도출되었다. 셋째, ‘적극적인’ 범주에서는 ‘적극적인’과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 있는’이 두 연구 모두에서 나타났고, ‘깊게 생각하는’ 범주에서는 ‘진지한’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격이 예민한’과 ‘자아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범주에 속한 특성들은 Hammer와 Vogel(2013)의 연구에서는 나타나지 않아, 한국 대학생들이 상담 받는 사람들에 대해 독특하게 인식하는 특성임을 알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상담 받는 사람들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 또는 원형을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시사점을 논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크게 ‘상담 받는 사람의 성격’과 ‘상담 받는 사람의 어려움’을 중심으로 상담 받는 사람들의 특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두 가지 범주는 각각 여러 개의 하위 범주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원형이 수평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수직적인 차원으로도 구조화된다고 주장한 Rosch(1978)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즉, 상담 받는 사람들에 대한 원형 또한 수평적·수직적 차원으로 조직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본 연구 결과 ‘상담 받는 사람의 어려움’ 범주가 ‘상담 받는 사람의 성격’ 범주보다 2배 이상 많은 특성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담 받는 사람의 어려움’ 범주에는 원형 평점 점수를 토대로 도출한 상위 10개 문항 중 8개 문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Hammer와 Vogel(2013)의 연구를 살펴본 결과, ‘상담 받는 사람의 어려움’과 관련된 특성들이 ‘상담 받는 사람의 성격’과 관련된 특성들 보다 2배가량 더 많이 도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범주의 크기는 그 범주가 대변하는 개념의 정교함뿐만 아니라 특정 문화가 개념에 부여하는 중요도를 나타낸다(Li, 2003). 따라서 한국과 미국 대학생들 모두 상담 받는 사람들이 다양한 ‘어려움’으로 인해 상담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그러한 어려움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전문적 도움추구 행동을 이해함에 있어서 그 원인과 동기를 강조한 선행 이론가들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Kushner와 Sher(1989)는 개인이 심리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경험할 때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고 보았고, Gross와 McMullen(1982) 역시 사람들이 신체적·심리적·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정상에서 벗어났다고 인식할 때 외부의 도움을 추구한다고 간주하였다. 오현수와 김진숙(2012)의 연구에서도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각하는 순간 전문적인

서비스를 구할 것을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담전문가나 실제 상담서비스를 찾는 내담자 뿐 아니라 상담경험이 전혀 없는 일반 대학생들의 경우에도, 개인적인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 상담과 같은 전문적인 서비스를 찾는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많은 대학생들은 상담을 받는 사람들이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주변에 의지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상담을 받는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범주에 포함된 2개 특성(‘내적 갈등이 많은’, ‘마음이 힘든’)은 상위 10문항 중 1위와 2위를 차지하여 원형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상담 받는 사람들에 대해 이 두 가지 이미지를 가장 많이 떠올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범주에 포함된 7개 하위 특성들은 모두 Hammer와 Vogel(2013)의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도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내적갈등이 많은’, ‘마음이 힘든’, ‘스트레스가 심한’, ‘불안한’, ‘초조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우울한’). 상담 받는 사람들이 심리정서적인 문제로 힘들어 할 것으로 인식하는 대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실제 상담을 찾는 사람들 또한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심리정서적인 문제를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청소년상담원, 2012; Gallagher, 2010).

한편,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상담 받는 사람들을 ‘주변에 의지할 사람이 없는 사람들’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문제가 있을 경우 주변에 이야기할 사람이 없거나, 또는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을 만큼 의지할 사람이 주변에 없기 때문에 상담자를 찾아 상담을 받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주변에 의지할 사람이 없는’ 범주에 속한 7개

특성 중 2개 특성만이 Hammer와 Vogel(2013)의 연구에서 도출되었다는 것이다. 두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도출된 2개 특성(‘마음에 상처가 있는’, ‘외로운’)은 주로 정서와 관련된 특성들이고, 본 연구에서만 도출된 나머지 5개 특성(예, ‘주위 사람들에게 털어놓기 꺼려하는’, 주변에 말할 사람이 없는’, ‘기댈 곳 없는’ 등)은 자신감이 없거나 주변에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음을 묘사하고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아시아인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거나(Narikiyo & Kameoka, 1992), 친구나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Akutsu, Snowden, & Organista, 1996), 또는 연장자인 어른이나 영적 지도자에게 도움을 청한다(Sue & Morishima, 1982).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경우에도 어려움이 있을 때 의논 상대가 친구, 부모, 교수, 전문상담기관 순으로 나타났다(이기학 등, 2008). 선행연구와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상담 받는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거나 또는 친구나 가족, 주변의 어른, 영적 지도자 등 의지할 사람이 없을 때 상담 받는 것을 고려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주변에 의지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상담 받는 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을 받고자하는 의향 또한 낮을 것이며 결국 상담 도움추구 행동으로 나타날 가능성 또한 높지 않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상담 받는 사람의 어려움’의 하위범주로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고민’ 범주가 도출되었다. 대학생 시기에는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 핵심적인 발달 과제이기 때문에(Super, 1990), 대학생들은 진로와 관련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시행착오를 경험한다.

이렇듯 대학생들이 당면하고 있는 발달상의 과제가 상담 받는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진로 문제는 심리정서, 대인관계문제에 이어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상담 받는 문제이다(이기학 등, 2008). 관련해서,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고민’의 하위범주에 ‘자아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범주가 포함되어 있는데, ‘자신의 인생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 잘 모르는’ 등의 특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특성들은 Hammer와 Vogel(2013)의 연구에서는 도출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상담 받는 사람들의 특성에 대해 독특하게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또한 평소 대학생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상담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에 투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삶의 역할 및 대안들을 탐색해야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기에 입시를 위한 공부에만 몰두하기 때문에 자아정체성 확립은 초기 성인기까지 유예되는 경향이 있다(김근영, 2013). 따라서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경우 상담을 받는 사람들은 진로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함께, 그 과정에서 자아정체성을 확립해나가기 위해 상담을 받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섯째, 대학생들은 상담 받는 사람들이 ‘적극적이고’, ‘깊이 생각하는’, ‘성격이 예민한’과 같은 성격적인 특성을 지닌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우선, 대학생들이 상담 받는 사람을 떠올리면서 ‘적극적인’ 이미지를 연상했다는 것은, 상담 받는 사람들이 상담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긍정적이고 주도적인 사람들로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적극적인’ 범주에 속한 7개 하위 특성 중 2개의 특

성이 Hammer와 Vogel(2013)의 연구에서도 나타났지만(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 적극적인),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미국 대학생들보다 더 다양한 '적극적'인 특성들을 상담 받는 사람들과 연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용기가 있는, 발전가능성이 있는, 자신에 대해 관심 많은, 어느 정도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는). 또한 본 연구에서는 Hammer와 Vogel(2013)의 연구에서처럼 '진지한'이 성격 특성으로 도출되었는데, 상담 받는 사람들이 평소 자신과 타인, 자신을 둘러싼 상황에 대해 생각이 많은 사람들로 인식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Hammer와 Vogel(2013)의 연구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성격이 예민한' 범주가 도출되었다(쉽게 상처받는, 감수성이 예민한, 자아비판적인). 이는 미국 대학생들과는 달리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상담 받는 사람들을 감수성이 예민해서 대수롭지 않은 일에도 크게 반응하고 상처받는 사람들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종합하면,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상담 받는 사람들을 매우 적극적이면서도 진지하다고 인식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감해서 쉽게 상처받고 스스로를 비판하는 특성을 지닌 사람들로 인식하는 등, 상담 받는 사람들의 성격에 대해 양가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특정 행동을 하게 되면 그 행동과 관련된 이미지를 갖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정 행동에 대해 긍정적인 원형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와 비슷하게 행동하려 하고, 부정적인 원형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러한 행동과 멀어지려한다(Dunning, Perie, & Story, 1991; Niedenthal, et al., 1985).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상담 받는 사람들을 적극적이고 진지한 사람들로 인식함과 동시에 쉽

게 상처받고 자아비판적인 사람들로 인식하고 있다면,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실제로 상담을 받는 것에 대해 갈등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상담실체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본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상담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어떤 원형에 초점을 두고 개입하는 것이 유용할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대학 내 상담센터 이용을 홍보할 때 본 연구에서 나타난 긍정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용기 있고, 적극적인 사람들'이 상담센터에 찾아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주변에 의지할 사람이 없거나 스스로 문제 해결이 어려운 사람들만이 상담센터에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을 원할 때에도 방문할 수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진로나 심리정서적 문제를 겪을 때에도 상담센터에서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한편, 대학 상담센터에 처음 내방한 내담자와 접수상담을 할 때 내담자가 평소 상담 받는 사람들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면 이러한 인식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다. 만약 내담자가 '스스로 해결이 어려운' 특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의 문제를 혼자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무능력하고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이해하고 대처함에 있어서 혼자 고민하기 보다는 상담을 받는 것이 더 유용할 수 있음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대학생들은 주로 사람들이 정서적인 어려움이나 진로 관련 고민, 풀리지 않는 문제 등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목적으로 상담을 받는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들이 상담을 주로 문제 해결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문제 해결 뿐 아니라 문제 예방과 발달 및 성장을 위한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Schmidt, 2003). 실제로 국내 대학 상담센터에서는 대학생들의 대인관계와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진로탐색과 잠재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이성관계 코칭 프로그램 등 발달과 성장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김수현, 2012). 그러나 전체 재학생 대비 참여하는 인원은 매우 적은 편이다(김정택 등, 2012). 대다수의 대학생들이 상담을 문제해결을 위한 수단으로만 인식한다면, 잠재적 내담자들이 상담을 통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고, 나아가 상담의 대중화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특정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좀 더 깊이 있는 자기 이해와 내적 성장 및 문제 예방을 위한 조력이 필요한 경우에도 상담이 유용할 수 있음을 다양한 매체(상담센터 홍보물, TV 프로그램 및 뉴스, 신문 칼럼 등)를 통해 홍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논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특성 도출 단계에서 63명, 특성 평정 및 선별 단계에서 113명, 특성 분류 단계에서 101명 등 총 세 단계에 걸쳐 277명의 대학생들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이 중 특성 평정 및 선별 단계에서 양적 분석에 참여한 113명은 다소 적은 인원이라고 볼 수 있다. 비록 60-62명을 대상으로 특성을 선별하고 평정한 선행연구들(Li, 2001; Zhou et al., 2012)보다는 많은 인원이지

만, 본 연구 결과를 우리나라 모든 대학생들에게 일반화하는 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해 다른 대학생 표본에서도 본 연구결과가 재연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특성 평정 및 선별 단계에서 높은 원형성을 나타낸 특성들을 선별하고, 이후 단계에서 참여자들이 많은 특성을 분류해야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할점(2.44점)을 사용하였다. 비록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분할점을 설정하였지만, 연구자의 편 의성과 주관이 개입되어 설정한 점수이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셋째, 비록 참고할 목적으로 본 연구결과를 Hammer와 Vogel(2013)의 결과와 비교하였지만, 상담 경험이 없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결과와 상담경험을 통제하지 않고 자료를 수집한 미국 대학생들의 연구결과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즉, 미국 대학생들이 인식한 상담 받는 사람들에 대한 원형은 실제 상담 경험으로 인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에서 동일한 조건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원형을 조사한다면 보다 정교한 비교문화적 연구가 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 받는 사람들의 원형을 조사하였다. 원형은 특정 지역이나 사회에서 생활하는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개념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Horowitz & Turan, 2008), 동일한 개념에 대한 원형일지라도 집단 또는 지역사회, 인종, 국가에 따라 다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연령, 교육수준, 직업, 거주 지역 등을 달리해서 상담 받는 사람들의 원형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하위집단의 특성에 따라 상담 받는 사람들에 대한 원

형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차별화된 개입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위계적 군집분석은 탐색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많은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상담 받는 사람들의 특성에 대한 인식 구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기초수준 4에 해당되는 9개 군집에 포함된 특성들을 대상으로 문항을 개발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다면, 본 연구에서 도출된 상담 받는 사람들의 특성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구조가 지지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해서, 원형/의향 모델을 기반으로 한 인과적 구조모형에서 원형 점수가 상담 받으려는 의향과 상담 받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단연구를 실시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담 받는 사람에 대한 원형이 변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상담 받기 전과 상담 받은 후에 상담 받는 사람들에 대한 원형이 달라지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근영 (2013). 대학생의 자아정체성 측정의 지위적 접근과 서술적 접근: 문화권에 따른 유사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0(6), 73-102.
- 김명언, 이훈진, 이병주, 이지영, 박진석 (2006). 서울대학교 2006년 대학 졸업예정자 대학 생활 의견조사 연구. *학생연구*, 40(1), 86-97.
- 김선경, 전재영 (2012). 기업상담소 방문 결정 이유에 관한 개념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2), 465-483.
- 김수현 (2012). 한국과 미국 대학상담센터의 주요 업무와 기능. *인간이해*, 33(2), 37-52.
- 김정택, 유영권, 천성문, 조성호, 금명자, 안명희 (2012). 토론회: 대학상담소 운영의 현황과 미래. *인간이해*, 33(2), 1-20.
- 김주미, 유성경 (2002).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문화적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4), 991-1002.
- 남숙경, 이상민 (2012). 전문적 도움추구태도 단축형 척도의 집단간 차이분석: 대상, 성별, 연령, 상담경험 유무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3(1), 341-366.
- 박준호, 서영석 (2009). 남자 대학생들의 성역할갈등과 상담 의도와 의 관계: 사회적 낙인, 자기 낙인, 상담에 대한 태도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1), 25-48.
- 보건복지부 (2011). 한 눈에 보는 OECD 보건 지표 2011.
- 신연희, 안현의 (2005).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에서 접근요인과 회피요인의 상대적 중요성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1), 177-195.
- 연합뉴스 (2011, 4, 11). 대학생 자살 연 230명... 심리상담 강화 추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004825>에서 2011, 4, 11 자료 얻음.
- 오윤자, 김현주 (2015). 2014학년도 서울캠퍼스 신입생의 대학생활 및 의식에 대한 실태조사. *경희대학교 학생생활연구*, 30, 1-108.
- 오현수, 김진숙 (2012). 내담자의 상담요청 결정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24(4), 781-805.
- 유성경 (2005). 한국 대학생의 상담, 심리치료, 정신치료에 대한 태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3), 617-632.
- 유성경, 이동혁 (2000). 한국인의 상담에 대한 태도에 관한 분석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2), 55-68.
- 유영란, 이지연 (2006). 성인 애착과 전문적 도움 추구 의도: 심리적 불편감, 지각된 사회적 지지, 자기은폐의 매개효과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2), 441-460.
- 이기학, 이경아, 이정화 (2008). 2008학년도 신입생 실태조사. *연세상담연구*, 24, 3-44.
- 이민지, 손은정 (2007). 낙인과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 간의 관계: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의 매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4), 949-966.
- 장미경 (2012). 청소년의 상담추구행동과 사회적지지 망의 관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9(2), 193-208.
- 정진철, 양난미 (2010). 낙인과 자존감,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3), 631-652.
- 최성인, 김창대 (2010). 상담에 대한 태도 척도 한국판 (K-BEACS) 타당화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1(1), 169-195.
- 한국청소년상담원 (2012). *상담경향보고서*, 2011.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Ajzen, I., & Fishbein, M. (1980). *Understanding attitudes and predicting social behaviour*.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Akutsu, P. D., Snowden, L. R., & Organista, K. C. (1996). Referral patterns in ethnic-specific and mainstream programs for ethnic minorities and Whit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1), 56-64.
- Armitage, C. J., & Connor, M. (2001). Efficacy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 meta-analytic review.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0(4), 471-499.
- Cramer, K. M. (1999). Psychological antecedents to help-seeking behavior: A reanalysis using path modeling structur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6(3), 381-387.
- Dunning, D., Perie, M., & Story, A. L. (1991). Self-serving prototypes of social categor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6), 957-968.
- Eisenberg, D., Golberstein, E., & Gollust, S. E. (2007). Help-seeking and access to mental health care in a university student population. *Medical care*, 45(7), 594-601.
- Fehr, B. (1988). Prototype analysis of the concepts of love and commit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4), 557-579.
- Fehr, B. (2004). Intimacy expectations in same-sex friendships: a prototype interaction-pattern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6(2), 265-284.
- Gallagher, R. (2010). *National Survey of Counseling Center Directors*. Alexandria, VA: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unseling Services.
- Gerrard, M., Gibbons, F. X., Houlihan, A. E., Stock, M. L., & Pomery, E. A. (2008). A dual-process approach to health risk decision making: The prototype willingness model. *Developmental Review*, 28(1), 29-61.
- Gerrard, M., Gibbons, F. X., Reis-Bergan, M.,

- Trudeau, L., Vande Lune, L. S., & Buunk, B. (2002). Inhibitory effects of drinker and nondrinker prototypes on adolescent alcohol consumption. *Health Psychology, 21*, 601-609.
- Gibbons, F. X., & Gerrard, M. (1995). Predicting young adults' health risk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3), 505-517.
- Gibbons, F. X., Gerrard, M., & Lane, D. J. (2003). A social reaction model of adolescent health risk. In J. M. Suls & K. Wallston (Eds.), *Social psychological foundations of health and illness*. Oxford, UK: Blackwell.
- Gibbons, F. X., Gerrard, M., Reimer, R., & Pomery, E. A. (2006). Health decision-making: Reasoned vs. reactive responding. In J. de Wit & D. de Ridder (Eds.), *Self-regulation in health behaviour* (pp. 45-70). Sussex, UK: Wiley.
- Gibbons, F. X., Gerrard, M., Blanton, H., & Russell, D. W. (1998). Reasoned action and social reaction: willingness and intention as independent predictors of health risk.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5), 1164-1180.
- Gibbons, F. X., Houlihan, A. E., & Gerrard, M. (2009). Reason and reaction: The utility of a dual-focus, dual-processing perspective on promotion and prevention of adolescent health risk behaviour. *British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4*(2), 231-248.
- Greenberg, L. J., Warwar, S. H., & Malcolm, W. M. (2008). Differential effects of emotion-focused therapy and psychoeducation in facilitating forgiveness and letting go of emotional injuri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5*(2), 185-196.
- Gross, A. E., & McMullen, P. A. (1982). The help-seeking process. In V. J. Derlega & J. Grzelak (Eds.), *Cooperation and helping behavior: Theories and research* (pp. 305-326). New York: Academic press.
- Hall, C. S., & Nordby, V. J. (1973). *A primer of Jungian psychology*. Taplinger.
- Hammer, J. H., & Vogel, D. L. (2013). Assessing the utility of the willingness/prototype model in predicting help-seeking decis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0*(1), 83-97.
- Hinson, J. A., & Swanson, J. L. (1993). Willingness to Seek Help as a Function of Self-Disclosure and Problem Severity.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1*(4), 465-470.
- Horowitz, L. M., & Turan, B. (2008). Prototypes and personal templates: Collective wisdom and individual differences. *Psychological Review, 115*(4), 1054-1068.
- Komiya, N., Good, G. E., & Sherrod, N. B. (2000). Emotional openness as a predictor of college students' attitudes toward seeking psychological help.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1), 138-143.
- Kushner, M. G., & Sher, K. J. (1989). Fear of psychological treatment and its relation to mental health service avoidance.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20*(4), 251-257.
- Li, J. (2001). Chinese conceptualization of learning. *Ethos, 29*(2), 111-137.
- Li, J. (2003). US and Chinese cultural beliefs about learning.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5*(2), 258-267.

- Narikiyo, T. A., & Kameoka, V. A. (1992). Attributions of mental illness and judgments about help seeking among Japanese-American and White American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3), 363-369.
- Niedenthal, P. M., Cantor, N., & Kihlstrom, J. F. (1985). Prototype matching: a strategy for social decision mak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3), 575-584.
- Rickwood, D. J., & Braithwaite, V. A. (1994). Social-psychological factors affecting help-seeking for emotional problems. *Social science & medicine, 39*(4), 563-572.
- Robbins, J. M., & Greenley, J. R. (1983). Thinking about what's wrong: Attributions of severity, cause, and duration in the problem definition stage of psychiatric help-seeking. *Research in Community & Mental Health, 3*, 209-232.
- Rosch, E. (1975). Cognitive representation of semantic categorie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04*, 192-233.
- Rosch, E. (1978). Principles of categorization. In E. Rosch & B. B. Lloyd (Eds.), *Cognition and categorization* (pp. 27-48). Hillsdale, NJ: Erlbaum.
- Root, M. P. P. (1985). Guidelines for facilitating therapy with Asian-American clients.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Practice, Training, 22*(2S), 349-356.
- Schmidt, J. J. (2003). *Counseling in schools: Essential services and comprehensive programs*. Boston: Allyn & Bacon.
- Shaver, P., Schwartz, J., Kirson, D., & O'connor, C. (1987). Emotion knowledge: further exploration of a prototype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6), 1061-1086.
- Snortum, J. R., Kremer, L. K., & Berger, D. E. (1987). Alcoholic beverage preference as a public statement: Self-concept and social image of college drinker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and Drugs, 48*(3), 243-251.
- Steffl, M. E., & Prosperi, D. C. (1985). Barriers to mental health service utilization.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21*(3), 167-178.
- Sue, S., & Morishima, J. K. (1982). *The mental health of Asian Americans*. San Francisco: Jossey-Bass.
- Super, D. E. (1990). A life-span, life 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In D. Brown & L. Brooks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Applying contemporary theories to practice* (2nd ed., pp.197-261). San Francisco: Jossey-Bass.
- Vogel, D. L., Wade, N. G., & Haake, S. (2006). Measuring the self-stigma associated with seeking psychological help.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3), 325-337.
- Vogel, D. L., & Wei, M. (2005). Adult Attachment and Help-Seeking Intent: The Mediating Roles of Psychological Distress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3), 347-357.
- Vogel, D. L., & Wester, S. R. (2003). To seek help or not to seek help: The risks of self-disclosur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 351-361.
- Vogel, D. L., Wester, S. R., Wei, M., & Boysen, G. A. (2005). The role of outcome

- expectations and attitudes on decisions to seek.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4), 459-470.
- Wampold, B. E. (2000). Outcomes of individual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Empirical evidence addressing two fundamental questions. In S. D. B. R. W. Lent (Ed.),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 (3rd ed.)* (pp. 711-739). Hoboken, NJ, US: John Wiley & Sons Inc.
- Wilson, C. J., Deane, F. P., Ciarrochi, J., & Rickwood, D. (2005). Measuring help-seeking intentions: Properties of the General Help-Seeking Questionnaire. *Canadian Journal of Counselling and Psychotherapy*, 39(1), 15-28.
- Wilson, C. J., Deane, F. P., Marshall, K. L., & Dalley, A. (2008). Reducing adolescents' perceived barriers to treatment and increasing help-seeking intentions: Effects of a classroom presentation by general practitione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7(10), 1257-1269.
- Zartaloudi, A., & Madianos, M. (2010). Stigma related to help-seeking from a mental health professional. *Health Science Journal*, 4(2), 77-83.
- Zhou, S., Leung, S. A., & Li, X. (2012). The meaning of work among Chinese university students: Findings from prototype research methodolog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9(3), 408-423.

원 고 접 수 일 : 2015. 4. 29

수정원고접수일 : 2015. 7. 27

게 재 결 정 일 : 2015. 8. 10

A Study on the Prototypes of Professional Help-seekers Perceived by Korean College Students

Yoon jung Wang

Young Seok Seo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prototypes of help-seekers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having no previous experiences in counselling.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crease use of counseling. Prototype research methodology was used to extract the attributes of help-seekers, with 63, 113, and 101 students at the survey, evaluation, and categorization stages, respectively. In doing so, their responses were to be horizontally categorized and to be hierarchically organized by 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Two attributes of the individuals seeking professional helps were “personality of help-seekers” and “difficulties of help-seekers”. Particularly, “suffering emotional problems” and “having no one to depend on” were the most frequently reported sub-attributes of “difficulties of help-seekers.” These findings provided practical guide to internal structure of the prototypes of help-seekers in college students, which could be applied to increase their help-seeking willingness. Small sample size of the second step constrained the findings to generalize into other college students.

Key words : Professional help-seeking, Prototype, Prototype research methodology, College students

부 록

표 3. 다차원 척도 분석 결과 상담 받는 사람들의 특성에 대한 2차원 좌표값

	차원	
	1	2
내적갈등이 많은	-.515	-.211
마음이 힘든	-.558	-.319
힘든 문제가 있는	-.308	.365
전문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157	.626
혼자서 해결하기 힘들어하는	.233	.735
스트레스가 심한	-.413	-.002
생각이 많은	.529	-.615
누군가의 관심이 필요한	.358	.578
자신의 인생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는	-.248	.819
문제 해결하려는 의지 있는	.830	.053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293	-.206
마음에 상처가 있는	.024	-.149
답답함을 느끼는	-.608	.427
불안한	-.604	-.545
주위 사람들에게 털어놓기 꺼려하는	.157	.020
뭔가 뜻대로 되지 않는	-.659	.493
초조한	-.545	-.583
어느 정도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는	.921	.140
발전가능성이 있는	.845	.028
우울한	-.349	-.211
자신에 대해 관심 많은	.774	-.072
자신감이 없는	-.123	-.037
주변에 말할 사람이 없는	.186	.204
쉽게 상처받는	.100	-.735
외로운	.068	.085
기댈 곳 없는	.180	.271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830	-.195
행복하지 않은	-.777	-.046
감수성이 예민한	.209	-.759
용기가 있는	.795	.024
자신에 대해 잘 모르는	-.166	.865
자아비관적인	-.087	-.625
위축되어 있는	-.073	-.105
불만족스러운	-.867	.110
적극적인	.806	.014
진지한	.849	-.442